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33> 유럽편 '도시와 대학'



프랑스 리옹 도심에서 노면전차로 20여분 거리 떨어져 있는 국제센터 및 국제학생기숙사. 주변에 아트 컨템포러리 박물관과 황금사자 공원이 있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도심에 단과대·기숙사... 활기찬 캠퍼스 시티

유럽의 창조도시들은 모두 도심 내 이곳저곳에 젊은이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장, 분수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일반 건물 앞 등에서 이들 젊은이들은 책이나 잡지를 보고, 음악을 즐기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음식점, 카페, 일반점포 등은 향후 이 도시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에게 가격의 10~20%를 상시 할인해주며 대우하고 있다. 대학은 한정된 대학부지 내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도심에 기숙사와 단과대학을 만들고, 그 주변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등과 어울리며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는 것이다.

젊은 대학 부지에 그나마 남은 땅에 민간자본까지 유치해가면서 기숙사나 건물 등을 지으며 수익 창출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학들은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어울리고, 지역에 기여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다. 또 도시 역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대학생들이 거처할 기숙사 부지를 마련해주거나 직접 취업 알선에 나서는 등의 대학과 대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와함께 젊은이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현실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도

광장·분수대·박물관... 어디든 젊은이들의 토론장
상점 이용 10~20% 우대... 학생은 지역 자산 인식
리옹, 기숙사 부지는 市가 건축비는 각국서 지원

시는 다양한 공공공간을 마련하며 배려하고 있다.

영국 에딘버러에는 낮이든 밤이든 젊은이들이 도심 곳곳에 모여 앉아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근처에는 나이 든 교사나 교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간간히 끼어들어 조율해줄 뿐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청 바로 앞에는 미술관이 있으며, 이 미술관 계단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간단한 점심을 끝낸 뒤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 주변에 어른들은 이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구경하고 이들은 또 그러한 시선을 즐기며 자유로운 표정과 자세로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눴다.

프랑스 리옹의 국제센터 및 국제학생기숙사로 쓰이는 건물은 유명한 황금사자공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에서 노면 전차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거처하고 있다. 부지는 리옹시가, 기숙사는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학생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지었다고 한다. 이 국제센터 및 기숙사 옆에는 아트 컨템포러리 박물관이 있고, 바로 맞은 편

에는 공원이 있어 이 구역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민·민족들로 붐빌 수밖에 없다.

스트라스부르 역시 국제학생기숙사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맞은 편에 영화관을 지었다. 또 주변 수로와 맞은 편의 넓은 건축물들도 조만간 문화시설로 개선할 방침이다. 스트라스부르시 마크 돈디(Marc Dondey) 경제개발 담당은 "스트라스부르는 문화, 지식 혁신, 매력적인 이미지 등을 전략으로 디자인·건축·광고 등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대학생들이 맡게 될 것"이라며 "학생은 지역의 자산이며 성장의 기본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도시에서도 학생들은 자주 눈에 띈다. 대학 내, 대학가만이 아니라 학생들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시를 활기 넘치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오전이면 자전거나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오후에는 식사나 차를 마시거나 도시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도시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청 앞 계단에서 담소 나누는 젊은이들.
- 2 학생에게 20% 세일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점포.
- 3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내 느긋한 오후를 보내는 대학생들.
- 4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제학생기숙사.

Photonics KOREA 2011

지식경제부

국내 최대의 광산업 전문 산업박람회!

2011 국제 광산업 전시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光 행사기간 및 장소
2011. 10. 4(화)~6(목) 3일간 10:00 ~ 17:00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光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 특징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해답이 될 수 있는 LGI노텍, 동부라이텍 등 광관련 151개 업체·단체 268개 부스 참가
- 독일 LEONI, 일본 SUMITA Optical Glass, 중국 Beijing SWT, 싱가포르 Wavelength 등 광관련 전문가와 글로벌 해외업체 다수 참가 및 참관
- 일본, 중국, 스페인, 터키, 러시아·CIS 등 약 200여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광관련 유관기관, 호남광역연도산업, 러시아·CIS 수출컨소시엄 공동관 구성
- 한·일·네델란드 농생명 LED공동세미나 개최
-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한국무역협회 수출상담회 개최
- KOTRA 정보가전/광산업 해외 진출 포럼 및 상담회 개최
- 광주 TP '대중소기업부품조달페어' 개최
- LED조명특별전시관 구성
- 「광산업 100억 CEO 포럼」, 광통신 및 LED 분과포럼

光 참관신청(사전등록)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사전등록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제광산업전시회 검색)
- 국제광산업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관신청 (<http://www.photonicskorea.org>)

Next Show

2012년도에는 정부정책 및 국제적인 트렌드인 저탄소·녹색성장 추세에 맞추어 LED조명을 주제로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한 **국제 LIGHT 비전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기간 : 2012. 10. 9~15(7일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상무시민공원 일원

주최 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주관 한국광산업진흥회